

한복을 입어요

글 | 박철주

그림 | 김정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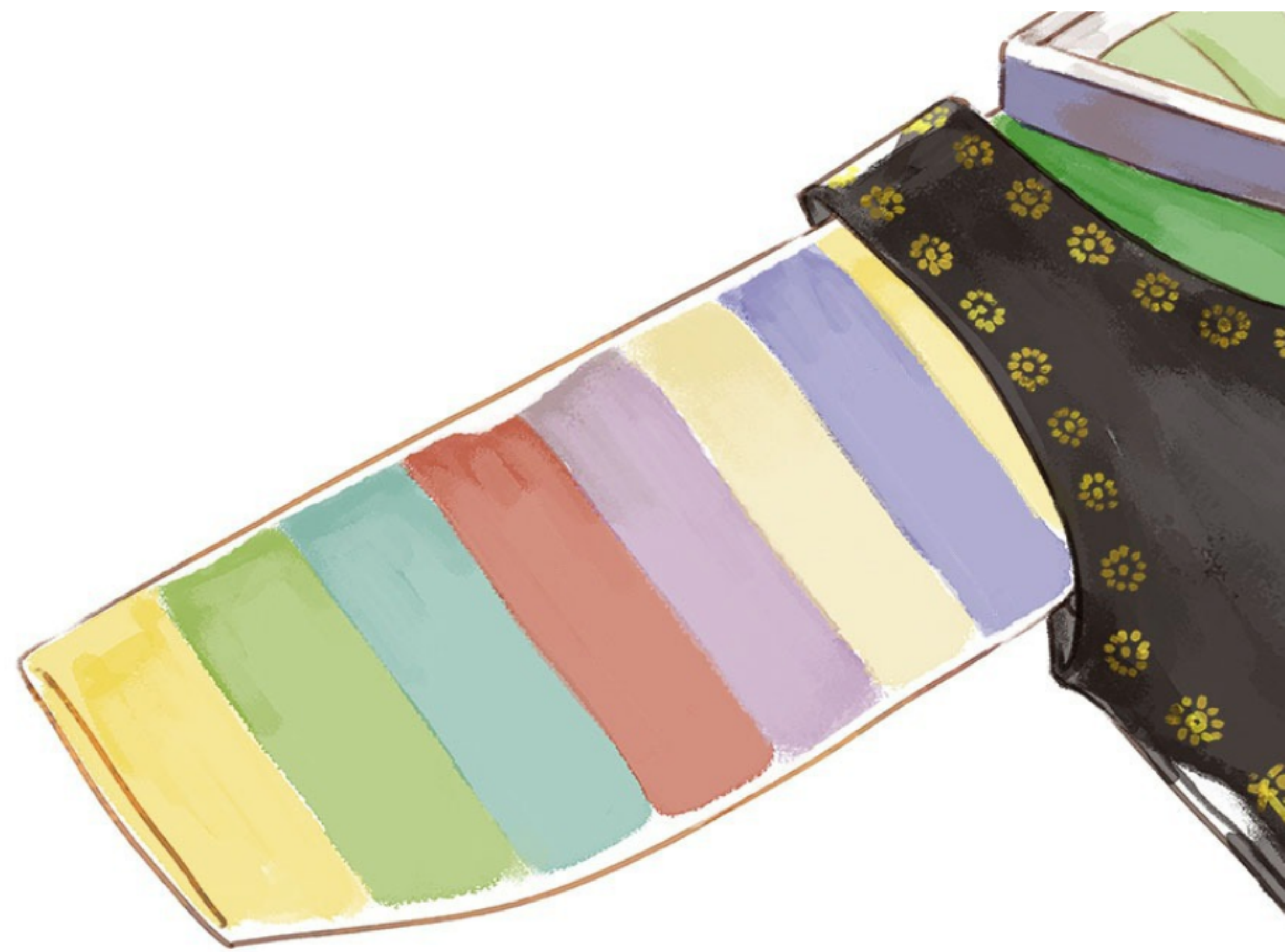
글 | 박철주

그림 | 김정현

편집 | 김은파, 이수인, 이정아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황창영





오늘은 내 동생 돌이에요.
아기가 태어나서 딱 1년 되는 날이 돌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시고 작은아빠랑 작은엄마도
오셨어요.



할머니가 상자에 예쁜 한복을 담아 오셨어요.
동생 둘 한복이래요.



한복도 종류가 여러 가지래요.

평상시에 입는 일상복도 있고 돌에 입는 돌복, 혼인할 때
입는 혼례복도 있대요.



여름 한복은 시원한 옷감인 모시나 삼베로 만들고, 겨울
한복은 따뜻한 비단이나 무명으로 옷을 만든대요.



남자아이 둘 한복을 상자에서 하나씩 꺼냈어요.

윗도리인 저고리, 바지, 조끼인 배자, 겹에 입는 까치두루마기와
전복이 들어 있어요.

머리에 쓰는 복건도 있네요.



“할머니 뭐부터 입어요?”

“저고리, 바지, 배자, 까치두루마기, 전복.

이런 순서대로 입으면 돼.”

예쁜 한복을 입은 동생이 얼른 보고 싶어요.



문득 서랍 속에 있는 내 한복이 생각났어요.

얼른 한복을 꺼냈어요.

하얀 속치마를 입고 속저고리를 입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버선을 신고, 주름 많은 다홍치마를 입었어요.

색동저고리를 입고, 예쁜 배자를 입었어요.



혼자서 고름을 매는 건 어려워요.

“할머니 저고리 고름 매 주세요.”

할머니가 두루주머니를 달아 주시고 머리에 땡기도 매 주셨어요.



어느새 동생도 돌복을 입고 방긋방긋 웃고 있네요.
동생 돌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모두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었어요.

“한복을 입어요”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